



고창군은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2017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 고창군 귀농귀촌 5년연속 대상

최고 품질 특산물 많아 귀농귀촌인 정착 최적지로 '각광받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2017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창조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모범사례가 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분야별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귀농귀촌 도시부문 브랜드대상에 선정된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복분자, 수박, 멜론, 고추, 땅콩 등 전국 최고 품질의 특산물이 많아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에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영농정착금·농기주택 수리비 지원 등 재정적 인 지원 뿐 아니라 귀농귀촌학교를 통한 정착 지원 교육 등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1800여명의 도시민이 정착

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인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를 고창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귀농귀촌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전국 귀농귀촌인들의 창업 매카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6차 산업과 고소득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의 거점 마련으로 귀농귀촌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오수애견특구 조성사업 새 전기 맞다

우석대 은민군 교수 "지역경제 발전효과 강조"

국내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아 애견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오수의견 전설로 유명한 임실군의 애견특구 조성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자신을 키워준 주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오수의견 이야기로 유명한 임실군의 오수애견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임실 오수의견 전설을 모티브로 추진될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오수 애견특구 조성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용호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된 토론회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오수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의견문화진흥회 등 오수지역 주민 40여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우석대학교, 임실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수 애견특구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김광희 사무관은 반려동물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가정책방향 및 국내 성공사례 들어 정책제시를 하고, 우석대학교 은민군 교수는 오수 애견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효과를 강조했다. 임실군은 오수의견으로 유명한 오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을 살려,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애견시장을 연계한 반려동물 대표관광지로서 애견특구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 순창군,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수상

2년연속 소비자행정부문... 클린 소비생활 시스템 높이 평가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행정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 대한민국국회행정위원회,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가 주관하는 행사다.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인물 및 기관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순창군은 그동안 주민 주도형 클린순창 운동 추진을 통해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대폭 높여 지속가능한 클린 소비생활 시스템을 만든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군립도서관, 작은영화관, 미술관, 청소년문화의 집, 작은목욕탕 등 문화향유 시설을 대폭 확대해 주민 만족도를 대폭 높인 점도 인정받았다. 실제 순창군은 지난해 문체부에서 실시한 지역문화 실태조사에서 전국 군 단위 상위 10위권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기념관에서 수상자와 관련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참미' 농협RPC 대표 브랜드쌀 최초선정 쾌거

우리나라 서남 내륙 중심에 위치한 남원은 천혜 청정 자연환경과 독특한 기후 조건으로 평야부에서 고랭지까지 전국에 안정적인 고품질쌀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농 1번지'이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WTO,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비 절감과 농협RPC 등과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원참미대표 브랜드쌀을 육성해 나오고 있다. 남원참미 대표 브랜드쌀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현장 교육과 남원농협RPC와 계약재배를 통해 전국 대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품종 통일화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우렁이농법을 도입 밭짓이 크게 향상 되었다. 이러한 결과 금년 농협중앙회에서 1~2월까지 2017년 농협RPC 대표브랜드쌀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87단계 순위가 상승 남원참미가 농협RPC 대표브랜드쌀로 남원에서 최초로 선정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방장산 일대 산악자전거공원 개장

고창군이 방장산 일대에 조성해 운영 중인 '고창 산악자전거공원(MTB Park)'을 4월부터 개장한다. 고창 MTB 파크는 국내에서 가장 긴 14.7km의 MTB 전용코스과 트레이닝 센터를 갖췄으며 전용코스는 초급과 중급, 고급 등 10개 코스로 세분화되어 있어 수준에 따라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다. 특히 코스의 폭이 2m에 달해 큰 위험 없이 짜릿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고 코스 중간 중간에는 다양한 높이의 점프대도 만들어 스틸을 만끽할 수 있게 했으며 전용트레이닝센터는 MTB를 배울 수 있는 경기장과 정비실, 편의시설로 이뤄졌다. 고창군에서는 지난 3월 한 달 간 전용코스의 낙석 및 물골, 나무 등을 제거하고 각종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으며 구급약품을 구비하는 등 개장 전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와 코스점검일 외 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산악자전거공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춰 MTB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전하면서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한 대회를 유치해 라이더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악자전거공원과 관련한 문의는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시설팀(063-560-8606)으로 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 참두릅 판매 '청신호'

순창 참두릅이 본격 출하되기 전부터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납품을 확정하는 등 인기가 치솟고 있다. 특히 출하를 열흘 정도 이상 앞둔 시점에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올해 순창 두릅의 판매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우선 납품을 확정할 유통업체는 롯데마트 116개 전국 점포와 박마켓 5개 점포, 수원·창동 하나로 유통센터, 롯데슈퍼 360개 점포, 성남 하나로 유통센터 등이다. 이미 지난해 보다 2배 정도의 유통망이 구축된 상태다. 이처럼 순창 참두릅이 출하 전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선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라 사포닌, 단백질,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우수한 품질에 있다. 또 군이 두릅을 군의 10대 작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한 정책적 측면도 이유다. 특히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유광희)과 관내 구립농협, 동계농협, 서순창농협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선출하회를 운영해 엄격한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순창울안애 참두릅'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통합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실시한 점도 성공요인으로 뽑힌다. 군은 올해 출하량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지난해 27톤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5톤, 매출액은 11억원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제값 받는 농업 산란농정의 모범 작물로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